

‘李 체포동의안’ 살생부에 광주·전남 정가 뒤숭숭

확인 안된 체포동의안 이탈표 ‘낙선 명단’에 지역 의원 4명 “문자·전화 테러 매우 지쳤다” 최고위 회의 살생부 논의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것과 관련, 민주당내 이탈표를 색출하려는 일부 당원들의 움직임에 광주·전남 정치권의 혼란이 극심하다. 사실관계가 파악되지도 않은 ‘살생부’가 지역 정치권을 멍들게 하고 있어 당 지도부의 내홍 수습이 시급하다.

1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최대 38석의 범민주당 이탈표가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재석의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더 많이나온 ‘가결 같은 부결’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반대표(138표)는 민주당 의석(169석)과 비교하면 31석이 모자랐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6명과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표명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합치면 총 176표의 반대표가 나왔어야 하지만 실제로 138표를 얻는 것에 그쳤다.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비밀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날부터 온라인에서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의 명단이 ‘민주당 살생부 명단’, ‘총선 낙선 의원 명단’ 등의 제목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의원들로 얼굴과 이름,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고 “우리 지지자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적혔다.

해당 명단에는 광주·전남의 국회의원 4

명의 신상도 포함됐다. 당 내부 비명(비이재명)계 그룹으로 분류된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이거나, 지난해 8월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부른 당헌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명단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해당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은 “광주·전남에서 어떻게 표심이 이탈될 수 있느냐”는 항의성 문자나 전화를 받는 등 큰 곤혹을 겪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지역의 한 의원은 “순수한 당원들 입장에서 민주당 이탈표에 분노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당을 갈라치기 하는 목적으로 사실관계도 파악되지 않은 명단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것에 어떤 의도와 세력이 있는 건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사실과 다른 공격과 비난에 제 이름이 자주 거론돼 매우 지쳐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여남은 상황에서 ‘낙선 명단’이 불려올 정치적 파장도 우려되는 상황. 급기야 이병훈(광주 동남) 의원은 “나는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독재에 대한 항거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이긴다”고 덧붙였다.

이 명단이 무분별하게 떠돌아다니는 것과 관련 당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친명계와 반명계 모두 정치적 충격을 받았다”며 “만약 이 상황에서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 반대표가 더욱 많아질 수 있어 분열보단 검찰의 노림수에 당하지 않도록 더욱 더 튼튼 연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도 적극적으로 살생부의 유포를 막아야 한다”며 당 지도부의 수습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측은 2일 당 최고 위원회의를 열고 해당 명단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해당 살생부 명단을 만들거나 유포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논의할 계획이다”며 “누가 제작했는지,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구체적인 논의하겠다. 단일대오로 가기 위해 당을 정비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창지 기자

나주시, SRF 사용허가 소송 항소 취하

난방공사도 소송서 공무원 제외 시 “환경·건강권 확보 지속추진”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사용 허가를 포함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6년 소송이 조만간 일단락 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기한 ‘나주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나주시는 소송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라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앞서 나주시와 사전 협의를 한 난방공사도 나주시의 항소 취하에 맞춰 시와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무원을 제외키로 하고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여억원을 들여 나주혁신도시에 집단 열공급을 위해 2015년 12월 준공한 나주SRF 열병합발

전소는 그동안 건강권 침해를 염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정상 가동을 못한 채 11건의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대부분의 소송이 난방공사 승소로 마무리된 가운데 SRF 사용 허가와 관련한 소송만 진행 중이었지만 나주시의 항소 취하로 SRF발전소를 둘러싼 모든 소송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해당 소송은 앞서 2021년 10월 18일 난방공사에서 사용 승인을 얻은 SRF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나주시가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난방공사가 SRF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지

난해 8월 25일 1심 판결을 통해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로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난방공사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나주시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나주시는 SRF 품질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재량권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1심 판결 이후 9

월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는 취하하지만 앞으로 발전소 가동에 사용되는 SRF에 대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만들어 철저히 조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와 SRF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감시단 구성’, ‘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검진 실시’, ‘사후 환경영양조사’ 추진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발전소 가동과 관련 시민과 보다 적극 소통하고 환경성 강화와 주민 건강권 확보에 주안점 둔 후속 조치를 기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룡·박승엽 기자

분양계약서 및 유상승선계약서 분실공고

- 주 소 : 전남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남약신도시 오룡지구 43동 우미린1차 101동1602호
- 계약자 : 전근영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드론타임 010-5681-8084

한정승인 공고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심판

사건번호 2022년 단136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김상천(720620-1*****) 최후주소 전남 해남군 화원면 관광리저로 936 (장춘리)

위 망 김상천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3월 2일
공고인 : 김세희, 문경자
한정승인 수리일 : 2023년 2월 21일
공고기간 : 2023. 3. 2. ~ 2023. 4. 1.

알림

자랑스런 성년종원(男,女)을 찾습니다. 전의이씨정공파중종(全義李氏栢亭公派宗中) 선조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중사(宗事)에 전국에 계신 종원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종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부탁드립니다.

- 서 류 : 세손,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증중에 필요한 서류
- 제출처 : 전의이씨정공파중종 사무실 Tel. 062)952-0075 Fax. 062)952-1075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60 Email. leeseoktan@naver.com 홈페이지. www.leefamily.co.kr

전의이씨정공파중종

알림(시제·정기총회)

전의이씨정공파 중종의 정기총회 및 시제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제 목 : 2023년도 전의이씨정공파중종 시제 및 총회
일 시 : 2023년 04월 01일(토) 오전10시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산75-1(시정공 묘소) 우천시 → 두암동 삼정제실

참석대상 : 전의이씨정공파 후손

- 안 건
1. 재판으로 파행된 문제해결의 건
2. 직무대행자 선임시(법원) 집행부 구성에 관한 건

-기타사항
중종의 발전과 화합의 차원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2023년 03월 02일
소집공고인(직무대행자) 연고항촌자 이 경 애 (29세)
대리인(전임회장) 이 교 인(29세)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명당(穴)을 만드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6개월 과정)

- 일 시 : 2023. 3. 8(수)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 478-1)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 일 시 : 2023. 3. 1(수) 오후7시.
- 장 소 : 상 동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 대 상 : 누구나(선착순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암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 (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주재기자 모집

당사는 지역언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 이상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및 인원

지역	고흥, 담양, 보성
인원	각 1명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명기)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소개서 1부

접수마감 및 접수처

- 접수마감 : 채용시 마감
- 접수처 : 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사 경영본부

이메일 접수 - recruit@jinilbo.com
■ 기타 사항은 ☎(062)510-042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全南日報